

# 셰익스피어 본문의 확립

—이론과 실제—

李 京 植  
(英文科 教授)

## I

셰익스피어의 극작품들의 본문은 당시의 특수한 사정들 때문에 작가의 손을 벗어난 극원고가 활자화되기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여러가지 모양으로 손상을 입었거나 와전되었다. 셰익스피어의 초판본들에 들어 있는 수 많은 본문상의 손상들을 복구하고 와전들을 바로잡는 것이 셰익스피어의 본문을 확립하는 것이 된다.

본문이 확립되기 전에는 셰익스피어의 극예술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한 것은 자명하다. 작가가 실제로 쓴 글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심미비평(aesthetic 혹은 evaluative criticism)과 해석비평(exegetical 혹은 interpretative criticism)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작가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구들을 제아무리 온갖 학식을 동원하여 훌륭하게 정의하고 주석을 단다고 해도, 제아무리 예민한 감수성과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가치평가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오직 하나의 도로(徒勞)에 불과하다. 만약 와전투성의 작품을 풀이하여(해석비평), 그것이 졸작 혹은 수작이라는 가치평가(심미비평)를 내린다면 그리고 나아가 작가의 문학적 상상력의 부재 혹은 우수성을 운운한다면 그것은 소극 이외에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인쇄된 단어들(printed words 혹은 words on the page)만을 대상으로 심상, 상징, 아이러니, 역설 등을 규명하는 철저한 언어분석 접근법인 New Criticism은 본문이 확립된 작품에 대해서만 그것의 장점을 심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본문의 확립은 이처럼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본문을 확립하는 작업을 본문비평(textual criticism)이라고 한다. 간단히 말해서 본문비평은 작가가 실제로 쓴 말들(actual words)을 찾아내어,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작가가 쓴 것에 가장 가까운 말들을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추측해내어, 작품의 본문을 확립하는 작업이다. 보다 간단히 말하면 본문비평은 가능한한 원래의 형태로 본문을 복구하는 technique이다. A.E. Housman의 말을 빌면 본문비평은 'the science of discovering error in texts and the art of removing it.'이다. art라고 한 것은 본문비평이 recension과 emendation을

1 A.E. Housman, 'An Application of Thought to Textual Criticism', *Art and Error: Modern*

포함하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의 경우 우리는 희랍과 로마의 작가들의 경우처럼 자필원고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본문비평이 하는 일은 가능한한 원문에 가까운 본문을 제시하는 것이다. Paul Maas는 본문비평의 일이 'to produce a text as close as possible to the original'이라고 하면서 특정한 작품의 현존하는 본문들의 전달과정과 상호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원문을 찾아내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 추측으로 본문을 재구한다고 했다.

So our first task is to establish what *must* or *may* be regarded as transmitted—to make the recension (*recensio*); our next is to examine this tradition and discover whether it may be considered as giving the original (*examinatio*); if it proves not to give the original, we must try to reconstruct the original by conjecture (*divinatio*) or at least to isolate the corruption.<sup>2</sup>

Maas의 이 뜻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Philip Gaskell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Traditionally the function of textual criticism has been to follow the threads of transmission back from an existing document and to try to restore its text as closely as possible to the form it originally took in the author's manuscript. In textual criticism of the Bible and of the works of classical and medieval authors, two stages are recognized: recension, the 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of the surviving manuscripts to each other (in the form of a *stemma* or family tree), so that their evidence can be used to reconstruct the features of the lost original; and emendation, whereby a knowledge of the processes of transmission—book hands, scribal habits, etc.—is brought to bear on the remaining textual problems, so that the true readings that underlie the corruptions may be deduced.<sup>3</sup>

본문비평은 본문에 대한 불신(mistrust)을 함축하고 있는 용어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본문에도 error 혹은 corruption이 들어있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error도 그것의 근원(origin)을 알아야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병도 병인을 알아야 과학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치와 같다. 이렇게 볼 때 error의 근원을 어떻게 알아내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textual error(혹은 corruption)가 생기는 근원들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인쇄원고(printer's copy)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error들이고, 또 하나는 인쇄원고가 인쇄소에서 활자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들이다. 간단히 말해서 전자는 scribal error들이고, 후자는 compositorial error들이다.

*Textual Editing* ed Ronald Gottesman and Scott Bennett (London: Methuen & Co. Ltd, 1970), p. 2. Originally printed in *Proceedings of the Classical Association*, XVIII (1921), 67-84.

2 Paul Maas, *Textual Criticism*, tr from the German by Barbara Flower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58), p. 1.

3 Philip Gaskell, *A New Introduction to Bibliography*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72), p. 336.

그러면 이 두가지를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자. 첫째 어떤 필사본 혹은 전사본(copied texts or MSS; transcripts)도 과오를 범하는 human agency 곧 scribe(작가 자신이 scribe일 경우도 있음)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본(original)에서 벗어나게 된다. Eugène Vinaver는 scribe의 특징들을 고려해 봄으로써 소위 scribal error들의 근원을 밝히고 있다. 그는 scribal error들은 scribe의 눈이 다음과 같은 네가지의 움직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했다.

...(a) the reading of the text; (b) the passage of the eye from the text to the copy; (c) the writing of the copy; and (d) the passage of the eye from the copy back to the text.<sup>4</sup>

(a)에서 생기는 error는 scribe의 교양과 지식이 저급하여 생기기도 하고 저자의 난필로 인해서 scribe가 글자를 잘못 읽음으로써 생기기도 한다. 이 경우 scribe는 원본을 정확하게 베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때의 error들은 무의식적인(unconscious) error들이 된다. 또 때로는 scribe가 원문의 뜻을 해득할 수 없어서 자기 나름으로 해석하여 베낌으로써 error가 발생한다. 또 때로는 scribe가 원본의 자구들에 불만을 갖는 나머지 수정을 가함으로써 의식적인(conscious) error—이것은 최악의 error이다—가 생긴다.

(b)와 (c)는 실제로 베끼는 행동이다. 이 두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error들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얼마나 많은 error를 내느냐는 scribe의 기억력에 달려있다. scribe의 기억력이 좋지 못하거나 좋다고 해도 한 번에 너무 많은 원본의 분량을 머리에 넣고 베낄 때 omission, dittography, misspelling의 잘못을 범하기 쉽고, 관사 a를 the로 변경(이 역도 가능)시키거나 동의어로 원문을 대체하는 error를 범한다.

(d)에서 생기는 error도 여러가지 있다. 베끼는 일을 다 마친 뒤 시선을 다시 원본으로 가져갔을 때, 특히 비교적 작은 공간 안에 동일한 구절, 단어, 글자 등이 되풀이될 때 단어, 구, 혹은 문장을 빠뜨리거나(error of omission) 반복해서(error of repetition)써놓게 된다.

Vinaver가 이야기하는 error들의 원인들은 식자공이 인쇄원고를 활자화하는 과정에서도 똑 같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작가의 초고를 scribe가 다시 베껴서 인쇄원고를 만들었을 경우는 작가의 초고가 그대로 인쇄원고로 사용된 경우 보다 이론적으로 두 배 정도의 error가 나오게 된다.

둘째, 인쇄원고가 인쇄소에서 활자화되는 과정에서도 식자공, 교정자 등의 human agency에 의해 여러가지 error가 발생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ompositor도 scribe가 범하는 종류의 error를 범하였다. 세익스피어의 시대에는 극작품의 경우 저자 자신이 직접 교정 보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다가 인쇄소의 교정자도 원고를 참조하지 않고 교정을 보는 것이

4 Eugène Vinaver, 'Principles of Textual Emendation', *Studies Presented to M.K. Pope* (Manchester, 1939), p. 354.

보통이어서 *compositorial error*들을 철저히 바로잡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error*를 추가하기 일수였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의 원인들로해서 셰익스피어의 초판본들에는 무수한 *error*와 *corruption*이 들어 있다. 이들을 바로 잡아 본문을 확립하는 것이 셰익스피어의 극문학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감상할 수 있는 첩경이다.

## II

그러면 셰익스피어의 본문을 확립하는 실제를 구체적인 몇가지 예를 통해서 알아보자. 셰익스피어의 어느 극작품의 본문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인쇄원고가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초판본들 중에서 가장 권위있는 곧 그 극의 원고에 가장 가까운 본문을 지닌 판을 선택하여 *copy-text*로 삼아야 한다. 대개의 경우 *first edition*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본문이지만 *Romeo*와 *Hamlet*와 같은 경우에는 초판이 모두 저질본문을 지녔기 때문에 가장 권위있는 본문은 제 2 판인 소위 제 2 사절판이다. *Henry V*와 *The Merry Wives*의 경우처럼 사절본들이 모두 저질의 본문을 갖고 있는 작품들과 1623년 이전에 사절본으로 출판된 적이 없는 작품들은 1623년의 *First Folio* 전집속에 가장 권위있는 본문을 지니고 있다. 일단 *copy-text*가 선택이 된 다음에는 *variants*와 *errors*를 해결하는 일이 남는다. *variant*들의 경우에는 대개 또 다른 권위있는 본문의 *reading*들을 참조하여 해결한다. *Hamlet*, *Lear*, *Richard III*, *Othello* 등과 같은 극들은 *authorial authority*를 가진 본문이 복수로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해결이 가능하다. *copytext*의 *error*들도 다른 현존하는 초기 본문들의 *reading*을 참조함으로써 종종 바로잡을 수 있다. 만약 문서적 증거가 부적절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emendation*에 의해서 *inferential authorial reading*의 근사치를 생각해냄으로써 *error*들을 제거한다. 간단히 말해서 셰익스피어의 본문을 확립하는데는 두가지의 길이 있다. (1) 현존하는 문서의 *documentary evidence*를 수집분석하여 어느 *reading* 혹은 *variant*가 가장 권위있는(*authoritative*) 혹은 가장 참다운(*authentic*) 본문인가를 판정하는 것이다. (2) 문서적 증거가 없거나 설사 있다고 해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할 때 독창적인 *emendation*을 가하는 것이다.

*emendation*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기적적인 우연에 의하지 않고서는 작가의 'actual' word들을 복구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작가가 쓴 것에 가장 가까운 것을 추측해내는 방법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주 시도되어서도 안되고 어디까지나 최후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emendation*은 영감에 의존하는 하나의 *art*이기 때문에 찬란한(*brilliant*) *emendation*을 인위적으로 탄생시키는 어떤 규칙이나 방법이 있을 수 없다. W.W. Greg가 *emendation*의 일반적인 원칙은 오직 하나 그것은 원칙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영감에 의존하는 *emen-*

ation이 어떤 규칙이나 방법을 지니고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어 위대한 본문비평가로 하여금 찬란한 emendation을 낳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해도 근소 비평가들이 미련한 emendation을 만들어 내는 것을 예방시켜 줄 규칙들은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이렇게 그 규칙을 제시했다. 즉 어떤 emendation도 본문의 내력과 근원('history and origin')의 어떤 관계의 뒷받침을 받고 있어야하며 만약 그것이 본문의 전달역사와 전혀 동떨어진 완전공백 속에서 오직 상상력 하나만으로 이루어진다면 (물론 기적적인 우연에 의한 찬란한 emendation의 경우를 제외하고) 또 그 emendation이 본문의 전달내력과 근원에 관해서 알려진 사실들과 정반대거나 상식과 배치된다면 plausibility를 상실하게 되어 훌륭한 emendation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emendation은 추측에 의존하지만 이 추측은 근거에 기반을 둔 추측 곧 근거있는 추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The central point at which I am aiming is this: that no emendation can, or ought to be, considered *in vacuo*, but that criticism must always proceed in relation to what we know, or what we surmise, respecting the history of the text. True, we surmise more often than we know, and a sufficient number of acceptable emendations would form a good enough ground for the revision of any textual theory. But we ought to realize clearly whither an emendation is leading us. It is no use proposing emendations in the hope that upon *some* theory they may prove possible. There are texts whose data are so simple, or whose history is so unknown, that a minimum of restraint is placed upon the invention of the critic. But where the available evidence is at all full, no one has a right to ask us to accept any emendation without attempting to show that its implications are not inconsistent with known facts or contrary to common sense. And if a critic is so bold as to propose several emendations in the same text, he may fairly be challenged to prove that they do not involve mutually contradictory theories of its origin.<sup>5</sup>

결국 Greg는 여기에서 emendation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지만 Greg보다 앞서 Housman은 이것의 어려움을 실감나는 비유로 설명한 바 있었다. Housman은 emendation을 꼬집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나 emendation의 일을 빼놓을 수 없는 textual critic의 일의 어려움을 벼룩을 잡으려고 벼룩을 쫓아가는 개의 어려움에 비유했다. 제 아무리 수학적인 원리 위에서 벼룩을 사냥한다고 해도 이 개는 우연에 의하지 않고서는 벼룩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의 어려움에 비하면 유성들의 움직임을 조사하는 Newton의 어려움은 도시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emendation은 벼룩을 잡고자 허공을 더듬는 개처럼 성공하기 힘들다는 말이다.

A textual critic engaged upon his business is not at all like Newton investigating the motions of the planets: he is much more like a dog hunting for fleas. If a dog hunted for fleas on mathematical principles, basing his researches on statistics of area and population, he would

5 W.W. Greg, 'Principles of Emendation in Shakespeare', *Proceedings of the British Academy* (1928), p. 152.

never catch a flea except by accident. They require to be treated as individuals; and every problem which presents itself to the textual critic must be regarded as possibly unique.<sup>6</sup>

그러면 작가의 본문을 확립하는 두가지 방법의 예들을 들어보자.

### 1. documentary evidence에 의한 본문확립

(a) Hamlet가 Ophelia의 무덤에서 Laertes와 싸우고 떠나가자 Laertes에게 간밤의 계락을 생각하고 참으라고 하는 Claudius의 말 중에 가장 권위있는 Hamlet text인 Q2(1604-5)는 'An hour of quiet thirtie shall we see'를 갖고 있다. 'thirtie'는 그대로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존하는 7권의 Q2를 대교해보면 일부 권의 reading은 'thirtie'가 아니라 'thereby'이다. 전자보다는 후자가 뜻이 더 잘 통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thereby'가 'thirtie'를 교정한 결과임을 쉽사리 알 수 있다. 그런데 역시 authorial authority를 갖고 있는 1623년의 F reading은 'An hour of quiet shortly shall we see'이다. 우리는 역시 쉽사리 'thereby'보다는 'shortly'가 더 뜻이 잘 통하고 더 적절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F가 주는 문서적 증거에 의해서 Q2의 교정자는 오자 'thirtie'를 교정할 때 원고를 참조하지 않고 'thereby'로 고쳤음을 알 수 있게 된다. 'thereby'는 말하자면 proof-reader의 corruption인 것이다. 또 palaeography의 도움으로 우리는 Q2의 식자공은 인쇄원고의 shortlie를 thirtie로 오독하여 식자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Shakespeare가 본래 쓴 단어는 shortlie이지 thirtie도 thereby도 아니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경우 본문은 F reading인 'shortly'로 확립된다. 만약 F text란 문서적 증거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thereby'를 읽고 있을 것이다.

(b) Laertes는 Ophelia의 무덤에서 누이를 미치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까지한 자의 머리 위에 슬픔이 떨어지라고 저주한다. F reading은 'Oh terrible woer./Fall ten times trebble, on that cursed head'로서 'Oh terrible woer'는 뜻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 한편 Q2 reading은 'O treble woe/Fall tenne times double on that cursed head'이다. 'O treble woe'는 뜻이 매우 잘 통할 뿐만 아니라 Hamlet의 경우 Q2는 F보다 더 권위있는 본문이므로 우리는 문서적 증거에 의해서 'O treble woe'가 셰익스피어의 original reading이라는 본문의 확립을 보게 된다.

우리는 Charlton Hinman의 연구로 F Hamlet의 문제의 대목을 식자한 식자공이 William Jaggard 인쇄소의 도제식자공이며 F의 다섯번째 식자공인 Compositor E였음을 알게 된다.<sup>7</sup> 식자공 E처럼 미숙한 식자공이 'O treble woe'를 'Oh terrible woer'로 잘못 식자했다는 것

6 Housman, p. 2.

7 Charlton Hinman, 'The Prentice Hand in the Tragedies of the Shakespeare First Folio: Compositor E', *Studies in Bibliography*, IX (1957), pp. 3-20.

은 전혀 놀라울 바 못된다.

(c) Richard III는 결전을 앞둔 날 밤에 악몽에 시달린다. 그에게 암살된 억울한 희생자들의 혼령들이 나타나 그를 협박한다. 악몽에서 깨어난 Richard 왕이 하는 말 중에 Q1(1597)는 ‘Richard loves Richard, that is, I and I’를 갖고 있다. ‘I and I’는 뜻이 통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에 상응하는 F reading은 ‘I am I’이며, 이것은 뜻이 매우 훌륭하게 통하는 말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문서적 증거는 셰익스피어의 ‘actual’ word는 ‘am’이었음을 말해주므로 우리는 ‘am’으로 본문을 확립할 수 있게 된다.

## 2. emendation에 의한 본문확립

(a) *Henry V*에서 Falstaff는 무대 뒤에서 죽는다. 다시 말하면 그의 죽음은 이야기로 알려질 뿐이다. Eastcheap의 Boar's Head 술집의 Hostess(former mistress Quickly, now wed to Pistol)가 Falstaff의 입종의 모습을 Falstaff의 술친구들에게 기술한다. 이 대목에는 ‘for his Nose was as sharpe as a Pen, and a Table of greene fields’가 나온다. 이것은 *Henry V*의 유일한 권위의 text인 F reading이다. ‘a Table of greene fields’는 뜻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 Q1(1600)는 저질의 본문을 갖고 있는 데다가 역시 뜻이 통하지 않는 ‘talk of floures’를 갖고 있어서 문서적 증거는 있지만 도움을 주지 못한다.

18세기의 두번째 Shakespeare editor였던 Alexander Pope는 ‘a Table of greene fields’를 극본(혹은 무대본)의 margin에 써 놓았던 소도구(property)에 대한 prompter의 노트가 본문으로 오인되어 활자화된 것으로 보고 이 대목을 그의 Shakespeare edition에서는 제거해 버렸다.

Pope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의 처사에는 동정이 가지만 세번째 18세기의 Shakespeare editor인 Lewis Theobald는 Pope와 의견을 근본적으로 달리했다. Theobald는 이것이 prompter의 note가 아니라 본문의 일부로서 ‘a Table’은 실은 ‘a’ babbl’d (=he babbled)의 와전일 뿐이라고 함으로써 셰익스피어 편집사상 가장 찬란한 emendation을 기록했다.<sup>8</sup> 오늘날에도 그의 emendation이 계속 채택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 emendation은 전적으로 Theobald의 독창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그가 지니고 있던 F1 copy에 이름 미상의 사람이 ‘a’ talked’라고 써놓은 것에서 힌트를 받았던 것이다. 또 이 이름 미상의 사람이 Q1 reading(‘talk of floures’)에서 힌트받았을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어쨌든 이 Theobald의 emendation은 오늘날 palaeography의 뒷받침도 받고 있어서 우연의 일치의 경우에 속하는 희귀한 예의 하나이다. 우리는 Sir Edward Maunde Thompson 등 palaeographer들의 연구 결과로 Shakespeare가 secretary hand로 원

8 Lewis Theobald, *Shakespeare Restored*, etc. (London, 1726).

고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sup>9</sup> secretary hand에 있어서는 *t*가 *b*와 혼동되기 쉬우며 특히 final *e*와 final *d*가 그러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요컨대 Elizabethan handwriting인 secretary hand와 당시의 철자관행을 검토해 볼 때 셰익스피어가 실제로 쓴 것은 'a babld' (혹은 'a babbl'd')였고 식자공이 원고를 오독함으로써 'a Table'이란 오식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a는 부정관사 외에도 he를 뜻하는 말도 되었다. 사람에 따라서는 'a로 하기로 했다. *Hamlet* Q2에서 예를 하나 든다. 극의 서두에서 혼령이 나타나자 Bernado는 그때까지는 혼령의 출현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취한 Horatio에게 혼령이 Hamlet왕과 닮지 않았느냐고 물을 때 he를 a로 나타내고 있다. 'Lookes a not like the King: marke it *Horatio*.'

(b) *Macbeth*는 F text만을 갖고 있어서 문서적 증거의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경우이다. 부인으로부터 대담성과 용기가 부족하다는 꾸지람을 받자 Macbeth는 'I dare do all that may become a man;/Who dares no more is none.'이라고 대답한다. 'no'는 그대로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 첫번째 18세기 Shakespeare editor였던 Nicholas Rowe는 이것을 'do'로 emend 했다. 이 emendation은 그후(1709)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셰익스피어 편집자들이 따르고 있는 emendation이다.

### III

이상에서 우리는 복문의 확립 곧 textual criticism의 이론과 그것의 실체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본문을 확립하는 작업에는 필요불가결한 도구가 하나 있다. 이것은 textual criticism의 grammar라고까지 불리워지는 분석서지학(analytical bibliography 혹은 critical bibliography 혹은 New Bibliography)이다. 본문확립의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분석서지학을 간단히 알아보자.

bibliography는 Greek의 bibliographia(=the writing of books)의 anglicised form으로서 enumerative (or systematic) bibliography와 analytical bibliography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책들을 어떤 system에 의해 분류수록하거나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혹자는 여기에서 primary documents만을 기술(physical description)하는 것을 따로 떼어내어 descriptive bibliography로 부르고 있다. 자연 W.W. Greg의 *A Bibliography of the English Printed Drama to the Restoration*(4 vols.)이 descriptive bibliography의 전형적인 예이고 primary documents 뿐만 아니라 modern editions와 secondary documents를 아울러 실는 enumerative bibliography의 예로서는 *The Cambridge Bibliography of English Literature*를 들 수 있다.

분석서지학(여기에서 textual bibliography를 따로 독립시키는 사람도 있다)은 인쇄된 책

9 Sir Edward M. Thompson, 'Handwriting', *Shakespeare's England*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16), Vol. i, pp. 284-310; *Shakespeare's Handwriting: A Study* (Oxford, 1916), 63 pp.

들과 MSS의 physical evidence를 연구한다. 그 목적은 책을 실제로 제조하는 과정들의 세부를 알아내어 원칙들을 세우고 그와 같은 제조과정의 결과로 생기는 physical characteristic들을 찾아내어 특정한 책들의 문제들을 푸는데 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printing, printing-house practices, typography, book-binding, paper-manufacture 등에 대한 지식이 모두 분석서지학의 보조적(ancillary) 지식들이다. 분석서지학은 영국에 The Bibliographical Society가 창립된 1892년을 전후해서 시작된 비교적 새로운 학문이기 때문에 New Bibliography라는 이름도 얻었지만 출발때부터 그것의 대상은 엘리자베스 시대의 극문학이었고 그것의 목적은 Elizabethan plays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Robert K. Turner, Jr.는 분석서지학이 하는 일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Analytical bibliography seeks, through the study of books as objects, to discover demonstrable truths about the transmission of texts. Because its practice involves the collection and interpretation of physical evidence according to logical rules, it is sometimes called scientific, but if it is in some ways like science it nevertheless exists today chiefly to serve humanistic learning, for its facts are contributions to the greater precision of textual criticism, and textual criticism in its turn exists to establish the true form of the documents upon which literary and historical knowledge is based.<sup>10</sup>

분석서지학은 책들을 tangible objects 혹은 material objects로, 임의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약정의 기호들로 둘러싸인 종이장들이 유기적으로 그나름의 질서하에 집합해 있는 물체로 본다. 현존하는 문학(literary and other documents)은 유형적(material)인—oral이나 memorial이 아닌—단계를 거쳤는데 분석서지학은 바로 이 유형적인 단계 혹은 유형적인 전달과정을 연구한다. 이 유형적인 전달에 대한 연구는 본문의 근원, 내력, 인쇄원고의 성격, 16세기와 17세기 영국의 인쇄소의 제반 관행들과 식자공들의 습관을 알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분석서지학은 본문의 유형적인 전달(the material transmission of literary texts)을 연구하기 때문에 본문을 전달하는 매개체 곧 책들과 이 책들의 구성분자들, 인쇄도구의 일체와 본문을 전달하는 능동적인 agent인 인간들(식자공, 교정자, 인쇄공, 제본인 등)의 활동을 모두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분석서지학은 책 자체에서 찾아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풀이할 수 있는, 말하자면 책 자체가 제공하는 물리적인 증거(physical evidence)만을 가지고 그 책이 완성될 때까지의 모든 것을 알아내려고 한다.

분석서지학은 책들이 지니고 있는 physical evidence를 분석서지학적으로 풀이 함으로써 본문 확립에 많은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 몇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a) Gervase Markham의 극작품인 *The Dumble Knight*(1608)는 작가를 밝힌 title-page를

10 Robert K. Turner, Jr., 'Analytical Bibliography and Shakespeare's Text', *Modern Philology*, 62 (1964-65), pp. 51-2.

갖고 있는 권들과 밝혀져 있지 않은 title-page를 갖고 있는 권들이 있다. 어느 쪽이 먼저 나온 edition이나를 가리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해적판이 아닐 경우에는 먼저 나온 edition일 수록 작가의 MSS와 더 가까움으로써 더 높은 권위의 본문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literary critic은 이 physical evidence를 잘못 풀이하여 작가가 밝혀져 있지 않은 표지를 지닌 edition이 뒤에 나왔다고 했다. 작가 Markham은 그의 극작품이 자기의 것이 아닌 addition들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자 격분한 나머지 표지에 밝혀져 있는 작가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했으며, 그 요구의 결과로 출판인은 표지에서 작가의 이름을 제거한 edition을 후에 내었다고 예의 literary critic은 풀이한 것이다. 그러나 분석서지학은 이 edition의 physical evidence를 가지고 작가가 밝혀진 표지를 가진 edition이 후에 나온 것이라는 그 반대를 증명했다. 즉 작가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권들의 표지는 그 맞은 편인 facing leaf와 conjugate leaf를 이루고 있었고 작가의 이름이 올라있는 권들의 표지는 그것의 facing leaf와 conjugate leaf를 이루고 있지 않은 새로 삽입된 cancel leaf였다. 따라서 작가의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title-page가 original first leaf였음이 의심의 의지없이 증명된 것이다.

(b) 16, 17세기 edition들에 들어있는 허위적인 출판년대를 가렸다. 이 경우 주로 이용하는 physical evidence는 watermarks, 활자들, 종이 등이다. 만약 표지에 나타난 출판년대 이후에 나온 활자들이나 종이가 사용되었다면 그 책은 표지된 출판년대 이후에 나온 것이 틀림없으며 그 출판년대는 자연 허위년대가 되는 것이다.

허위출판년대를 밝힌 가장 유명한 예는 Greg가 watermark가 주는 physical evidence를 가지고 밝힌 Pavier의 「1619년 Quarto들」의 출판년대이다. Thomas Pavier는 1619년에 *The Whole Contention, Pericles, A Yorkshire Tragedy, The Merry Wives of Windsor*를 출판하였는데 그는 여기에 *Henry V* ('Printed for T.P. 1608'), *Sir John Oldcastle* ('London printed for T.P. 1600'), *King Lear* ('Printed for Nathaniel Butter, 1608'), *The Merchant of Venice* ('Printed by J. Roberts, 1600'), *A Midsummer Night's Dream* ('Printed by James Roberts, 1600')을 끼어서 일종의 set로 판매하였다.

Greg는 이들 9개의 Quarto들의 watermark를 조사한 결과 똑같은 watermark들이 1619년, 1600년, 1608년을 출판년대로 갖고 있는 작품들을 인쇄한 종이 모두에 나타남을 알아내었다. 이 physical evidence는 이 9개 작품들 모두가 1619년에 출판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절판들이 갖고 있는 출판년대인 1600년과 1608년은 모두 허위출판년대였던 것이다.<sup>11</sup>

(c) Shakespeare의 Quarto들의 인쇄원고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현존하는 원고는 하나도 없지만 physical evidence를 가지고 2H6(1594), 3H6(1595), *Romeo*(1597), H5(1600),

11 W.W. Greg, 'On Certain False Dates in Shakespearian Quartos', *The Library*, n.s., Vol. IX (1908), pp. 113-31 and 381-409.

*MWW*(1602), *Hamlet*(1603) 등과 같은 저질본문들은 극단이 지방공연을 다닐 때 단원들이 기억으로 재구한 무대본을 인쇄원고로 갖고 있음을 알아내었다. 한편 양질의 본문을 지닌 사절판들과 F에 처음 활자화된 본문들은 대부분 셰익스피어의 자필원고(*autograph MSS*)에서 인쇄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d) 작가의 자필원고가 인쇄원고로 쓰였다고해도 무대본으로 사용된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려야 한다. 무대본으로 쓰인 것은 극장에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본문에 대한 ‘book-keeper’(prompter)의 개입이 있게 되어 그만큼 작가의 원문과 멀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 종류의 자필원고 중 어느 것인지를 아는 것이 본문을 확립하는데 중요하다.

물론 분석서지학으로 혹은 *physical evidence*에 대한 분석서지학적 풀이로 우리는 인쇄원고의 무대본출신 여부를 거의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중요한 것 몇가지 들면 첫째, 등장준비를 해야할 배우들과 곧 사용하게 될 소도구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무대지시(*stage direction*)('ready to open the trap doore for Mr. Taylor; chessboard and men set ready' 등)는 무대본출신임을 증거한다.

둘째, 인물이 등장할 때 그가 조금 후에 사용하게 될 소도구를 언급하는 무대지시('Enter Leucippus with a bloody handkerchief' 등)도 무대본의 특징이다.

셋째, 배우들의 이름을 주해형식으로 언급하는 무대지시(Ent: Demetrius—Wm. Pattrick' 등)는 무대본의 특징이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은 *Romeo*(Q2), *Much Ado*(Q1)에서 처럼 배우들의 이름이 등장인물의 이름 대신에 나타난 경우에는 무대본으로 이용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sup>12</sup> 셰익스피어의 경우는 이 경우 뿐이다.

넷째,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speech-heading*에 표시될 때 경우에 따라 그 *designation*이 달라지는 것(Lady Capulet가 "Wife", "Old La.", "Capu. Wi.", "La.", "Mo." 혹은 "M.", "Lady of the house" 등으로 불리움)은 무대본으로 이용된 적이 없음을 증거한다.<sup>13</sup>

(e) R2의 Q3가 Q1에서 인쇄되었느냐 아니면 Q2에서 인쇄되었느냐를 가렸다. Q3가 Q2에서 인쇄된 것을 가리는 데는 단 하나의 *physical evidence*로 충분했다. Q2가 Q1에서 인쇄된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 Q1의 한 'for'가 Q3에서는 'or'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상응하는 Q2의 *reading*을 보니 'for'로 되어 있긴 하지만 'f'자가 몹시 희미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이 증거는 Q3의 식자공이 이 희미하게 나타난 Q2의 'f'를 간과하여 그만 'for'를 'or'로 식자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R2 Q3는 Q2를 인쇄원고로 하여 출판된 증판(*reprint*)인 것이다.

12 R.B. McKerrow, 'The Elizabethan Printer and Dramatic Manuscripts', *The Library*, 4th Ser., Vol. XII (1931), p. 272.

13 R.B. McKerrow, 'A Suggestion Regarding Shakespeare's Manuscripts', *Review of English Studies*, XI (1935), pp. 464-65.

(f) R3 F가 Q1를 인쇄원고로 가졌느냐 Q3를 인쇄원고로 가졌느냐를 가렸다. R3의 현대 edition의 1막 1장 65행의 Q1, Q3, F의 reading은 각각 다음과 같다.

Q1 : That tempers him to this extremity.

Q3 : That tempts him to this extremity.

F : That tempts him to this harsh extremity.

Q3는 Q1의 'tempers'를 'tempts'로 바꾸어 놓았다. 그 결과 의미가 달라진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두 음절의 단어를 단음절의 단어로 바꾸므로써 5 feet의 행을 4 feet 반으로 줄어늘게 하였다. 이 불구의 행은 'tempts'가 어떤 새로운 권위있는 MS를 참조한 결과가 아님이 명백하다. Q3와 F의 차이점은 F가 'harsh'를 삽입한 것이다. 이 삽입으로 다시 5 feet의 행이 되었다. 그런데 F가 Q3의 'tempts'를 그대로 지닌 것으로 보아 'harsh'의 삽입은 어디까지나 faulty line을 바로 잡기 위해서 멋대로 인쇄소에서 넣은 것이지 권위있는 어떤 새로운 MS를 대교한 결과는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하면 R3 F는 Q3를 인쇄원고로 해서 조판된 것이지 Q1를 인쇄원고로 삼은 것이 아니다.

#### IV

1940년 경에 이르면 F1에 대한 Hinman의 일련의 연구<sup>14</sup>에 주로 힘입어 셰익스피어 본문의 와전은 MSS의 특징들보다는 인쇄소의 인간적인 요소들과 인쇄방법에 더 기인함을 알게 되었다. 이 인쇄방법과 인간적인 요소들에 관한 연구가 낳은 주요 결과들을 몇가지 들어 보겠다. 이 결과들이 본문의 확립에 큰 도움이 될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a) stop-press correction. 전지(sheet)의 한 면에 들어갈 분량이 초과되어 chase 속에 넣으면 이 forme의 인쇄가 시작되었다. 보통 첫번째로 뽑아낸 것(pull)이 교정쇄로 쓰였다. 극작품의 경우 교정은 인쇄소가 고용한 사람에 의해서 행해졌다. 교정이 끝날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쇄공은 인쇄를 계속 하였으며 교정쇄가 되돌아오면 비로소 기계를 멈추었고 교정지시는 활자판에서 이행되었다(press correction). 교정지시들의 이행이 끝나면 다시 그 forme의 인쇄는 속행되었다. 그 후에도 오차가 발견되면 기계를 멈추고 그것을 바로 잡았으며 이런 식으로 그 forme의 인쇄는 예정한 부수의 수만큼 뽑아낼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sup>14</sup> Charlton Hinman, 'Proof-Sheet in the First Folio of Shakespeare', *The Library*, 4th Ser., XXIII (1943), pp. 101-7; 'Mark III: New Light on the Proof-Reading for the First Folio of Shakespeare', *Studies in Bibliography*, II (1950), pp. 145-53; 'Variant Readings in the First Folio of Shakespeare', *Shakespeare Quarterly*, IV (1953), pp. 279-88; 'Cast-off Copy for the First Folio of Shakespeare', *Shakespeare Quarterly*, VI (1955), pp. 259-73; *The Printing and Proof-Reading of the First Folio of Shakespeare* (2 vols)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63).

forme의 인쇄가 끝나면 뽑은 것들을 얹어놓고 전지의 뒷면의 인쇄를 시작했으며(perfecting) 첫번 뽑은 것을 교정쇄로 삼는 등 이 forme의 교정도 앞면의 forme이 거친 것과 동일한 교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전지의 한면이 교정받은 것이라고 해서 그것의 다른 면도 교정받았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 것이다.

이 stop-press correction의 관행이 본문전달에 큰 결과를 초래했을 것은 자명하다. 앞서 보았듯이 현존하는 *Hamlet* Q2의 일부 권들이 'thirtie'를 갖고 있는데 반하여 나머지는 'thereby'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관행의 소산인 것이다. 즉 동일한 forme의 본문과 동일한 sheet의 본문이 부분적으로 여러가지의 상태로 나타난다. 만약 10개 sheet(20개 forme)로 구성된 책이라면 10개 sheet, 20개 forme이 모두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제본하였을 때, 다시 말하면 동일한 edition이라도 우연에 의하지 않고서는 꼭 같은 본문의 두 권이 생길 수 없다. Hinman은 자신이 고안한 대교기(collating machine)를 이용하여 Folger Shakespeare Library에 소장된 80여권의 F1를 대교한 결과 어느 한 권도 다른 권들과 모든 점에서 일치하는 동일한 본문을 지니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stop-press correction은 엘리자베스 시대란 특수한 시대의 산물이다. 엘리자베스 시대는 교정쇄가 돌아올 때까지 인쇄공을 놀리는 여유가 없었고 교정받지 않은 sheet를 제본에서 배제하기에는 종이와 너무나 귀한 시대였다. 어쨌든 이 관행이 세익스피어나 그의 동시대 작가들의 본문확립의 일에 주는 힌트는 초판본들의 현존하는 모든 권들을 일일이 대교해야 하며 정정된 상태의 forme과 정정되지 않은 상태의 forme을 가려내고 그 정정이 성실한, 신뢰할만한 정정인지 아니면 새로운 error를 도입한 것에 불과한 불성실한 정정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본문의 확립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b) F1는 folio-in-sixes이다. 즉 세개의 전지를 겹쳐서 한번 접은 것을 한 접지(quire; gathering)로 삼은 책이란 뜻이다. 따라서 F1의 한 접지는 6 leaf 곧 12 page로 이루어져 있다. F1는 66행이 한 단을 이루는 2단 조판의 페이지가 907개나 되는 방대한 folio이기 때문에 제본의 편의와 책의 외양을 고려해서 folio-in-sixes로 했을 것이다. 당시 부피가 큰 이 절판 책을 매끈하고 반듯하게 제본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종종 사용했다고 한다.

(c) F1는 casting-off copy에 의해서 식자되었다.

folio-in-sixes를 page 순(seriatim)으로 식자한다면 1~7 page까지의 식자가 끝나야 비로소 6~7 page가 이루는 forme을 인쇄에 붙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할 경우 식자공이 1~7 page를 식자할 동안 인쇄공은 할 일이 없어 빈둥거리게 된다는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활자재고의 부족으로 F1처럼 큰 책의 7 페이지를 standing type로 가지고 있을 여유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F1의 인쇄인은 그 당시 가끔 채택한 forme 별 식자방법을 썼다. 이것은 6~7 page forme, 5~8 page forme, 4~9 page forme, 3~10 page forme, 2~11 page forme, 1~12 page forme의 순서로 식자하고 인쇄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 forme 별 식자방법을 택하면 두 forme 곧 4 page를 식자할 활자의 여유만 있으면 된다. 왜냐하면 둘째 forme이 식자되는 동안 첫번째 forme은 인쇄가 끝날 수 있고 해판되고 분류되어(distribute) 세째 forme 식자에 재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two-page forme의 식자 방법에는 잇점이 있었다. 인쇄공을 늘리지 않는다는 점과 두명의 식자공이 동일한 forme의 식자를 한 페이지씩 분담함으로써 동시에 일 할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인쇄공과 식자공의 이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당시 한 edition의 부수를 1,250~1,500부로 제한한 것을 감안할 때 이 식자방법은 또 하나의 이점을 지닌다. 두 식자공이 folio의 한 forme을 식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인쇄공이 한 forme을 1,250~1,500부 박아 내는데 걸리는 시간과 거의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일이 시간의 낭비없이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two-page forme별 식자방법은 부족한 활자분제를 훌륭하게 해결해주고 일을 매우 능률적으로 진행시켜주지만 본문전달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결점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이 식자방법은 casting-off copy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6~7 page forme을 먼저 식자하기 때문에 1~5 page에 들어갈 원고를 미리 계산해서(casting-off copy) 남겨야 하는데 만약 계산상(casting-off)의 착오가 생길 경우 본문에 영향을 줄 것은 뻔하다. 남긴 원고가 남긴 지면보다 적을 때는 공백을 남긴다든지 산문을 운문으로 식자한다든지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본문에 그리 심각한 결과를 내지 않았지만 그 반대일 경우 즉 남겨놓은 원고가 남겨놓은 지면보다 더 많을 때 최악의 경우 본문의 일부가 영원히 사라져 버릴 수 있었다. 물론 운문을 산문으로 식자하는 등의 공간조정 방법으로 해결했지만 남긴 원고의 분량이 너무 많을 때는 이런 방법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F1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다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식자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이 식자방법이 본문 전달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는가를 아는 것은 본문확립에 큰 참고가 된다.

casting-off의 착오를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casting-off(=estimating)는 master printer가 담당하였다. 또 1~5 page에 들어갈 원고를 한 묶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각 page에 들어갈 원고를 계산하였다. master printer는 page 끝에 다음 page의 첫단어가 될 단어 곧 catchword를 표시해 놓으며 식자공은 이 catchword에 따라서 남겨놓은 원고분량의 착오가 있을 경우마다 해결했다. 따라서 착오의 누적이 가져올 혼란은 어느 정도 예방되었다. 물론 유능한 경험많은 master printer가 casting-off copy를 했기 때문에 원고의 상태가 지극히 나쁜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계산이 거의 정확하여 본문에 별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d) F1의 proof-reading의 질은 지극히 불량하다. F1가 얼마나 양질의 원고 교정을 받았는가를 알도록 해주는 것이 두가지 있다. 하나는 거의 기적적으로 제본에 이용된 교정쇄(proof-sheet)이다. 지금까지 4개(각각 *Antony*, *Othello*, *Lear*, *Romeo*의 한 sheet)가 발견되었다. 또 하나는 Hinman이 이룩한 80여 권의 Folger Shakespeare Library 소장 F1들의 대

교이다.

Hinman의 대교와 F1원고 교정에 대한 연구<sup>15</sup>는 F1에서 원고 교정을 반영하는 변형들은 불과 510개 정도이며 이 510개도 F1의 36편 극작품들에 고루 퍼져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 정도가 불과 70여 페이지에 몰려 있음으로 해서 F1의 900여 페이지 중에서 134 페이지만이<sup>16</sup> 교정을 받은 것임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정정된 510개의 대부분인 490여개도 *typographical*한 (따라서 'accidental' error들—구두점, *wrong spacing*, *turned type*, *transposition* 등) 정정이고 의미 자체에 영향을 준 'substantive' error들을 정정한 것은 불과 'a few dozen'이었다. 이것도 원고참조에 의한 교정이 아니라서 새로운 error를 도입하는 굵어부스럼이 되는 식의 교정이었으며 원고참조에 의한 교정은 단 두개 뿐이었다.

요컨대, F1는 매우 부적절한 *proof-reading*을 받았다. 이 사실은 F1의 본문에는 수 많은 와전이 들어 있다는 말이 되며 셰익스피어의 본문이 F1에 얼마나 충실하게 전달되었는가는 주로 이를 식자한 식자공들에게 달려 있었다는 말이 된다.

(e) 그러면 과연 F1의 식자공들은 유능하고 성실해서 F1의 *textual integrity*를 기하는데 큰 기여를 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한가지 자위할 수 있는 것은 분석서지학의 도움으로 F1를 식자한 식자공들의 버릇과 개성들을 알아내고 분석함으로써 그들이 식자한 부분을 대부분 추적해내었기 때문에 셰익스피어의 원문을 찾아내고 혹은 그것에 가깝게 *emend*하여 본문을 확립하는 일이 훨씬 용이해 졌다는 사실이다.

*spelling test*와 *type case evidence*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F1를 위해 일한 식자공 A, B, C, D, E, F 등 6인을 가려내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담당한 작품, *page*, *column*, 심지어 *line* 까지도 거의 대부분 밝혀내었다. 이것은 각 식자공의 개별 신뢰도를 알 수 있게 해주었다.

Alice Walker는 F1H4의 11 *page*를 식자한 A와 14½ *page*를 식자한 B가 각각 낸 *error*를 분석한 결과 A는 80행에 하나 꼴로 *error*를 낳았는데 반하여 B는 15행 내지 16행에 하나 꼴로 *error*를 낳았음을 밝혀내었다.<sup>17</sup> 식자공 E는 B보다도 더 신뢰도가 없었다.<sup>18</sup> 이 연구로 우리는 B와 E가 식자한 부분은 보다 더 과감하게 *emend*하고 편집하여 본문을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인쇄된 F1의 *page*들이 주는 *physical evidence*만으로 6명의 식자공을 가려내

15 Charlton Hinman, 'Six Variant Readings in the First Folio of Shakespeare', *Library Series* No. 13 (University of Kansas Libraries, 1961), pp. 3-17.

16 Comedies의 총 302 *page* 중 28 *page*에 70개, Histories의 총 262 *page* 중 31 *page*에 70개, Tragedies의 총 317 *page* 중 75 *page*에 370개이다.

17 Alice Walker, 'The Folio Text of 1 Henry IV', *Studies in Bibliography*, VI (1954), pp. 45-59.

18 Charlton Hinman, 'The Prentice Hand in the Tragedies of the Shakespeare First Folio—Compositor E', *Studies in Bibliography*, IX (1957), pp. 3-20.

고 또 이들의 식자한 부분을 행까지 거의 정확히 알아내었다는 것은 분석서지학의 일대 개가인 것이다. 우리가 식자공들의 개성, 철자버릇 내지 철자선호, 기타 버릇들을 보다 더 소상히 파악하고 이들이 범하기 쉬웠던 오류들을 보다 더 완벽하게 파악하게 된다면, 그리하여 그들이 저지른 잘못들을 F1에서 말끔히 제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셰익스피어가 본래 쓴대로의 본문에 아주 가까운 본문을 확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문의 확립이 이루어지기 전에 없이 문학작품을 연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을 확립하는 본문비평가 그것의 도구인 분석서지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Abstract»

**Establishing Shakespeare's Text in Theory and Practice**

**Kyung-Shik Lee**

There are two main origins of textual errors in early quartos and the First Folio of Shakespeare: scribes and printing houses. To discover these two kinds of errors and to remove them is to establish Shakespeare's text. What I propose to do in this writing is to discuss (1) origins of textual errors and corruptions, (2) some principles and means for correcting these errors and corruptions, (3) analytical bibliography and its contributions to the establishment of Shakespeare's text, and (4) some important practices of 16th- and 17th-century English printing houses which have important bearings on the transmission of Shakespeare's text such as stop-press correction and casting-off copy.

Two things are suggested as means to correct textual errors and corruptions. One is documentary evidence which is given by the equally authoritative corresponding text, and the other emendation. Documentary evidence enables us to substitute authorial readings whereas emendation aims at substituting readings as close to inferential authorial readings as possible.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produce good emendations. Greg's warning can serve to prevent bad emendations from being produced: 'no emendation can be, or ought to be, considered *in vacuo*, but that criticism must always proceed in relation to what we know, or what we surmise, respecting the history of the text.'

Analytical bibliography is an indispensable tool of textual criticism; i.e. the task of establishing Shakespeare's text. By analysing books as material objects, it seeks to discover all the demonstrable truths about the transmission of texts and about every process of bookmaking from papermaking to human agents involved like compositors, press-correctors, press-men, and bookbinders. The finest triumph that analytical bibliography has so far achieved is the demonstration that six compositors worked for the First Folio of Shakespeare and which part each of them undertook, thus revealing spelling-preferences or habits and reliability of each of them. Compositor B, for instance, introduced a new error in every 15 or 16 lines he composed. This means we can emend him more freely than Compositor A who made an error in every 80 lines. In conclusion, there is no denying that analytical bibliography is indispensable for the task of establishing literary texts in general and Shakespeare's text in particular.